

삼위일체 대축일

기도서 312 면(A해)

제1독서 : 출애 34, 4-6 8-9

제2독서 : II고린 13, 11-13

복음 : 요한 3, 16-18

숲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성령 가족들에게 고향

박 중 신 신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등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열매들만 지니고 있다면 구태여 성령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느님과 참다운 만남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태까지 우리의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분석해 보는데 그저 기계처럼 기도하고 교회의 의식(명령), 즉 율법에 살았고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여 가까이 계시고자 하는 그 하느님을 찾아서 만나지 못할 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체험한 우리 교회의 전통에 감사하되, 노예가 되지 말 것과, 현세의 부조리를 극복하며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추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체력이 오늘날 어떤 종파에서처럼 성령과 반대되는 소란을 피우거나, 우상숭배, 마술, 싸움, 시기, 질투, 이기심 등을 조장하고, 병자회생이니 기적 운운하며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있어 하나의 자극 내지는 기폭제가 될 지언정 그 자체가 결코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운동이 목적이신 하느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회칠한 무덤”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더욱 겸손하고, 하느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정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 현대 세계 안에서 진실된 인간답게 생활하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이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느냐 혹은 저버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단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죽음과 암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인 부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호자동 주임 신부)



원액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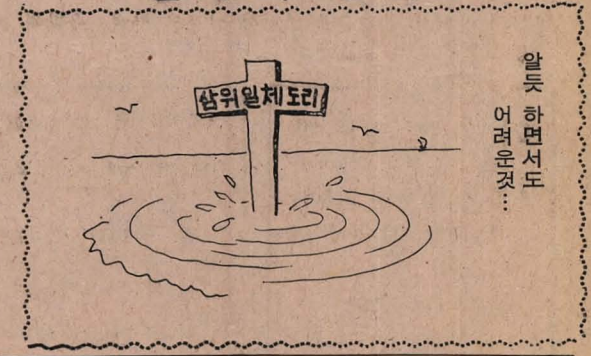
요사이 갑자기 100% 원액의 양주 광고가 소개되고 있다. 양주인지만 그 이름조차도 「킹(임금)」이나 「비 아이 피(대단히 중요한 사람)」 등이다. 율법칙을 앞두고 외국 손님을 맞으려면 그렇게 국제적으로 놀아야 하는지는 몰라도, 국제적인 수준의 빚더미 위에 앉아서 양주 원액 수입을 위해 외화를 그렇게 낭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여름철이면 원액 100%의 양주보다 더 생각나는 것이 있다. 뜨거운 보신탄 국물이다 소주를 마시며 땀을 흘리는, 우리의 할아버지 때부터 해내온 피서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보신탄은 건강을 위한 영양식이요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문화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보신탄이 극성스러운 몇몇 외국 사람들의 항의에 밀려나다니, 이는 참으로 말도 안된다. 남의 전통적인 문화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야말로 뉘엿뉘엿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 달려 들어 꼭두각시 춤을 추다니... 아마 뜻대없는 인간의 처신에 개들도 분노를 느낄 것이다.

물론 보신탄 산업(?)을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개를 학대한 인간의 처신도 지탄 받아야 한다. 이는 병든 소를 수입해 온 사람이나, 그런 짓을 하고도 오리발을 내밀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극에 달한 향락과 퇴폐산업으로 치부하려는 사람이나, 그런 일에 한 몫 킁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불을 보는 것처럼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런 일을 허가해 준 위정자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광고 문안처럼 「인간에게는 인간이 비 아이 피」가 되어야 한다. 인간 서로는 그 이하일 수도 없고, 또 그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비 아이 피를 함께 마실 때 서로가 서로의 비 아이 피」가 되어서는 안된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성자와 성령이 서로 높고 낮음도 없듯이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원액 100%의 상태다.

숲정이 산책



### 북한 선교의 의의, 목표 및 방향①

□교리 해설

-의 의 :

### 삼위일체(三位一體)

이 땅에 일치와 구원의 성사인 한국 천주교회는 창립 200주년을 맞아 온 민족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픔을 더욱 깊이 느끼면서 겨레의 염원인 통일과 북한의 선교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교 선열들의 모범을 따라 교회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삼위(三位)란 성부(창조주, 하느님), 성자(예수님, 하느님의 아들), 성신(성령)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되는 것일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이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느님이 알려 주신 교리로 가톨릭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신조이다.

#### 1.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시어, 기꺼이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어 서로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서에 직접 나오지는 않으나, 구약에서는 암시적으로 표현이 되고 신약에서는 명시적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데에서 신앙화된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시어 구원토록 하셨으며(요한 3, 16-17) 모든 이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셨다. 또한 사랑과 일치와 성령을 보내시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느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배려하셨다.

이 신앙은 사도들의 초기 교회로부터 믿어 내려왔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신앙의 신조로 재확인하였다

성부 성자 성신은 한 하느님이시며 세 위격적(位格的) 표현으로 우리를 하느님 자신의 신비로 초대하신다.

#### 2. 교회의 본질과 사명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온 인류가 당신을 표본삼아 사랑안에 일치함으로써 한 공동체가 되도록 섭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 주는 표지와 도구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볼 수 있는 표지요 이 세상 구원과 일치와 성사이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봉사하며 사랑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진리와 정의, 사랑과 평화를 건설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내적 본질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요청이요, 교회 창설자의 지상 명령인 것이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자 아들이시며 또한 성령이시기도 하다. 그러나 세 위는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성부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는 성부가 보내신 아들로써 사람이 되시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으며, 성부와 성자가 보낸 성신은 교회 안에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사랑으로 일치시킨다. 삼위가 상호 연결되어 있지만 독립적 위격을 갖는다는 말이다.

#### 3. 민족의 염원인 남북 통일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교회나 겨레가 마치 반신불수와도 같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북한의 침묵의 교회는 심한 탄압과 암흑 속에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 지체로서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혈육을 같이하는 동포의 일치와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고와 희생이라도 바쳐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바칠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 정신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언어는 기억에서 생겨나고 사랑은 언어와 기억에서 생겨난다. 기억, 언어, 사랑-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인간의 정신은 하나이다. 인간의 정신 속에 기억, 언어, 사랑이 자리잡고 있지만 서로 간에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은 하나라는 것이다.

북한 선교와 민족의 통일은 한국교회가 저야할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이를 통해 상상치 못할 하느님의 축복과 빛나는 월계관을 받게 되리라 믿는다. 특히 200주년을 맞으면서 갖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으로 이 땅에 복음전파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신 선조들을 본받아 기도와 함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믿는 것은 신의 기초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파악할 수 있는 명시적 형태이기도 하다. 교회의 모든 성사 집행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 \*삼위일체에 관한 성서 구절

- 요한 10, 30, 마르코 13, 32, 고린도전서 13, 13,
- 로마 8, 9, 마태오 28, 19, 루가 24, 49, 요한 14, 16,
- 마태오 3, 16, 갈라디야 4, 4-6, 고린도전서 12, 4-6

#### \*방송안내 : 이리 기독교 방송(1314KHz)

- ①꿈과 음악 사이(월요일~금요일까지 밤 11시 30분경)
- 밤의 명상(5분)-성 태수 신부 담당

### 마 기 환 안 과

원장 : 전문의 마 기 환  
 장소 : 팔달로변 불세다방 2층  
 전 화 75-2203  
 한 남회(비리시타)

신속배달 설비시설

### 한국 가스 상사

☎ 3-1457-72-0612  
 김 성 두(토마스)  
 이 미 자(안젤라)

### 롯데우유 남원대리점

신선한 우유  
 내고장 우유  
 남원시 금동 192  
 ☎ 남원 7 6 4 6  
 김 정 애(루치아)

### 성심연와공업사

변색 벽돌·적벽돌(제조 판매)  
 공장전화 : 황산 174번  
 본사 : 이리시 창인동  
 전주사무실 : ☎ 4-0385  
 이리시 창인동 1가 259  
 ☎ 2994-7979  
 대표 : 차계철(베드로)

### □ 예수 성심성월의 의의

6월은 예수 성심성월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특별히 묵상하며 공경하는 달이다. 그러나 예수성심성월을 지내면서도 그 의의와 정신을 모른다면 성월을 올바르게 뜻있게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예수성심계 대한 신심은 11~12세기경부터 교회 안에 싹터 왔으며 여러 세기를 거치는 동안 점점 뚜렷해지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 친히 성인들에게 나타나시어 영시(靈示)를 주시으로써 이 신심은 인정받고 오늘처럼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 성녀 젤뚜르다, 성 보나벤투라, 성 베드로 까리사우스, 성 요한 에우테스, 성녀 말가리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856년 교황 비오 9세께서는 예수성심 축일을 전교회 축일로 설정하고 그 때까지 이미 널리 전파되었던 이 신심을 교회의 공적 신심으로 인준하였다.

예수성심계 대한 신심의 참된 뜻은 예수님의 구원적인 그 사랑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애정을 갖고 성심을 공경하며 사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의 인성(人性)이 갖고 있는 사랑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서도 또한 인간을 구하고자 하는 신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였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수난을 당하실 때 그분의 마음은 한없이 커다란 고통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애통해 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죄를 통회하고 보속함으로써 그 고통을 감해 드리고 위로해 드린다는데 이 신심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신심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심을 닮아가는 데 그 뜻이 있기도 하다. 성서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덕을 본받기 위해 성심을 묵상하는 것이다.

### □전주교구 7위 성인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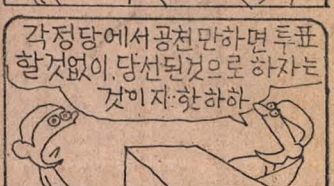
### 성 정 문호 바르틀로메오(1801~1866)

일명 '제식'으로도 불리는 정 문호는 충청도 임천(林川) 출신으로 임천에서 천주교를 알아 입교하여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다. 박해로 인해 고향을 버리고 여러 지방을 유랑하다가 병인 박해 때에는 전주지방의 교우촌인 대성동 신리에 살고 있었다. 한때 고을의 원을 지내기도 하여 풀행이 단정하고 성격이 강직해서 교우들뿐 아니라 의외인들에게까지 평판이 좋았다. 1866년 12월 초 사람을 시켜 박해에 대한 전주 감영의 동태를 살피러 보냈으나 그 소식을 듣기도 전에 12월 5일 대성동과 성지동을 급습한 포졸들에게 손 선지, 한 원서 등과 체포되어 12월 13일 5명의 교우와 함께 전주 서문밖 숲정이에서 참수되어 66세로 순교했다. 순교하기 전 정 문호는 옥중에서 항상 기도로서 순교를 예비했고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과거보러 가는 날이다. 오늘 은 정말 기뻐해야 할 날이다"고 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순교를 기뻐했다.

### □ 교회 간행물을 읽읍시다

- 가톨릭 신문 : 월 구독료-1,200원, 정기 구독(선불)-1년 12,000원 6개월 6,000원
- 경향잡지 : 한 권-1,300원, 정기 구독(선불)-1년 13,000원 6개월 6,500원
- 생활 성서 : 한 권-1,900원, 정기 구독(선불)-1년 19,000원 6개월 9,500원
- 구독 방법 : 교구청 홍보국으로 직접, 또는 전화·서신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금 지불 : 우편대체(40010-31-9026907)나 소액환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요심이(567)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렌터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김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건강을 드려요  
전주 중앙시장 입구  
**시민약국**  
☎ ④ 0009 · ③ 3338  
김 마 텔 로  
정 엘리사벳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데레사(금순)  
☎ ④ 9206 · ③ 5289

• 혼수(회갑) 옷감 | 도  
• 특수 파티복 \* 매  
• 고급 치구류 \* 상  
• 각종 솜 일체 |  
• 커튼지 |

**서울주단**  
☎ ④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써스텔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 3651 · 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

**금보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4) 순 정 이



1. 하나회(장애자 모임) 일일 찾집: 17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장소-센타 다방
  2. 산간학교 준비 연수: 17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센타, 대상-각 지구 및 본당 중·고 회장단
  3. 6월 꼬미시움 월례회의: 17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각 푸리아 및 직속 Pr. 간부 전원
  4. 심성 개발 프로그램: 23일 오후 3시~24일, 장소-센타 교육관, 접수마감-19일까지 (20명 선착순), 문의 및 접수처-교구청 교육국 (5-0041~3)
  5. 제7차 레지오 연수회: 24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타, 대상-레지오간부 및 단원, 참가비-2천원
  6. 군산-이리지역 이향신자 방문(고산 신부님): 17일 오후 4시30분, 장소-주현동 성당
  7. 여성 제17차 푸르실로 연기: 9월 29일~10월 2일까지
- 이 순성 신부님 출국: 12일(벨지움 유학)  
 축! 영명: 성 알로이시오(21일)-이 태주 신부님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양)

전화 ①711~3  
 주임 신부 문 정 훈  
 보좌 신부 나 준 성  
 사도 회장 김 인 협

1. 김대건 신부 영화상영: 금일 저녁 미사후, 입장권-사무실, 성인 1천원 학생 5백원
  2. 본당의 날 행사: 29일-천호성인 묘소, 회비-2천원(교통비), 본당 사무실 신청
  3. 병자방문: 19일
  4. 유아세례: 22일-어머니 미사후, 본당의 날 행사관제
  5. 성탄반 예비자반: 금일 개강, 2층 교리실
  6. 애령회·자모회: 금요일 어머니 미사후
  7. 방지기 3회: 다음주 일요일 오후 2시
  8. 성모회 월례회: 금일 공식 미사후
  9. 벽돌 봉헌: 19,211장 봉헌
- 지난주 봉헌금: 1,138,492원 교무금: 520,500원  
 특별헌금: 윤마례오 감사헌금(1만원)·백리비아 감사헌금(1만원)

(노송동)

신부 ①0969번 주임 신부 김 울 태  
 수·사 ②7032번 보좌 신부 이 성 우  
 사도 회장 이 흥 재

1. 신축 기금 십인 합시다: 박태복·김종모·채 용·양 순례·익명·이순영·김병문·조창익-각 1백만원, 이성순·백옥남·한귀자·신상교·심금숙-각 5십만원, 누계-48,400,000원
  2. 푸리아 임원 개선: 단장-박종주, 부단장-김용환, 서기-장기수, 회계-김규래, 그동안 수고해주신 박태복 단장님께 감사드리며, 새 임원진의 활약 기대
  3.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4. 공소 회장단 회의: 19일 저녁 8시, 황윤리 공소에서 빠짐없이 참석 하세요
  5. 성전건립 헌판식: 24일 오전 10시 30분, 미사봉헌 있으니 참석 하세요
  6. 교무금 납부: 분납하여 밀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7. 환자 봉성체: 19일 오후 3시부터, 환자를 모신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 하세요
  8. 차주 전례담당: 제4조, 차질없이 진행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402,000원, 아파트-99,650원  
 교무금: 437,000원, 아파트-63,000원

(덕진)

신부 (3)2182 주임 신부 김 봉 희  
 수녀 (72)1222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무 (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오늘의 모임: 반석회·성모회(10시)
  2. 본당 애령회 조직 재편성: 회장-백환기, 부회장-전종근·임병순, 총무-박봉린, 위원-김정애(선교) 정주환(연도), 박윤자(봉사), 전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3. 요셉회(60세 이상 원로 모임)회원 모집: 귀한 삶·뜻을 합쳐 갖지게 엮어봅시다
  4. 병자 성사 및 봉성체: 20~21일 사무실에 연락바람
  5. 선교분과 위원회: 20일 밤 8시
  6. 고백성사: 주일-미사전 30분, 평일-미사전 10분, 은총 생활을 위해 가능한 자주 (월 1회정도)성사를 받습니다 특히 재 영세자들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7. 금주 본당 청소: 진부회·성심 부녀회(23일 오후3시)
  8. 차주 모임 안내: 진부회
- 지난주 봉헌금: 498,080원 교무금: 339,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사도회: 다음주일 저녁 미사후
2. 첫 영성체 교리: 7월 1일부터 부모님들 협조 바람

3.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 미사후(김수너님 지도)
  4.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2시 어린이 미사: 3시 빠짐 없이 보내 주세요
  5. 유아세례: 21일 저녁 미사후
  6. 교패 부치기 가정방문: 19일
  7.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정동민 ② 정운주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이갑진 ② 송영자
- 지난주 봉헌금: 105,550원 교무금: 423,680원

(서학동)

신부 ②8307번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②276번 사도 회장 김 낙 균

1. 모임: 성모회-오늘 공식 미사후
  2. 사제 양성 후원: 이문자·유해미·Pr. 셋별·장재석 권선희·박경옥·임채진·익명 한분(각 1구좌)감사합니다
  3. 공동체 목상회: 21~24일 (3박 4일)40명정도 희망자 신청 바람(참가비-2만원중 본당에서 1만원 부담), 등록-21일 오후3시 가톨릭 센타, 지침물-미사도구
  4. 성지 순례: 25일 새벽 6시 성당에서 출발, 장소-미리내 절두산, 40명분 추가 티켓 선착순 판매중임
  5. 유아세례: 매월 3째주 목요일 10시 미사후 (미리 신청바람)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김나설 ② 전영택
- 지난주 봉헌금: 332,520원 교무금: 171,000원

(술정이)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유·②9567 사도 회장 김 수 겹

1. 구역 정부회장 모임: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애령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4. 사도회 임시 회의: 오늘 12시
  5. 주일 미사는 본당에서 참례 합시다
  6. 교무금 미납은 없으십니까?
  7. 금주전례: 해설-이귀래, 독서-기도-홍성조·이순자
- 지난주 봉헌금: 217,125원 교무금: 375,45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 치 삼  
 전화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정 양 협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 병 오

1. 성화회: 공식 미사후
  2. 꼬미시움: 오늘 오후 2시
  3. 성 마리아 푸리아: 오늘 오후 4시
  4.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 1시 30분
  5. 본당 신부님 휴가(2주), 본당 수녀님 피정(8일간)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6. 민 마리아씨 성가 표지판 특별헌금: 10만원,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연 ② 최정석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안득수 ② 고수창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종만 ② 이 훈
- 지난주 봉헌금: 754,720원 교무금: 301,5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 교 성  
 사무 2-0915

1. 성령 세미나: 244명 참석, 감사 합니다
  2. 신설 단체장 모임: 오늘 공식 미사후 (사제관)
  3. 사도회 상임 위원회: 23일 저녁 7시 30분
  4. 자모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유치원)
  5. 사목 방문: 20일 오전-태하 아파트
  6. 설서 강좌: 수요일-저녁 8시, 토요일-오전 11시
  7. 유아 세례: 오늘 10시
- 지난주 봉헌금: 280,150원 교무금: 218,000원